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서울연극제 단막 희곡 공모 심사총평

지난 봄, 느닷없이 등장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며 많은 연극인들이 공연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서울연극협회는 힘겨운 시간이 소중한 창작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단막극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36일의 공모기간 동안 총 133편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3인의 심사위원이 약 2주간의 예심을 통해 아홉 편의 작품을 본선에 올렸습니다. 그 가운데 다섯 편을 최종심에서 논의하였고 이견 없이 당선작과 가작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응모해주신 모든 분들과 훌륭한 단막극 발굴의 기회를 제공해주신 서울연극협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몇 가지 뚜렷한 양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많은 작품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출구 없는 고통을 그리며 '비극'이 절대적으로 우세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가난과 채무, 치매와 노인자살, 재난 이후의 삶 등 시의적 소재가 주류를 이루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역사물이 현저히 줄었다는 점 역시 두드러진 양상입니다. 세 번째, 기존의 연극문법과 다른 매우 독특한 양식의 작품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가 본인만 이해할 수 있는 메타포, 예술성과 난해함에 대한 오해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발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희곡 쓰기의 경험이 미숙하여 주제가 모호하고 소재만 두드러진 작품이 적지 않았다는 점 역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최종심에 오른 다섯 편의 작품은 모두 당선작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의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노인자살 문제를 다룬 〈성탄절의 유언〉은 생동감 있는 언어구사와 극적 사건구성이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다만 삶을 버리게 된 수많은 이유가 아들과의 갈등이라는 두드러진 서사로 인해 단편화 되어버린 점이 아쉽습니다. 재난상황에서 유예된 예술과 사랑을 그린 〈재난시대의 예술가와 코로나시대의 연극〉은 작가의 언어구사 능력이 탁월한 작품입니다. 몽환적인 전개에도 불구하고 주제의식이 명확한 점 등은 장점으로 꼽혔으나 텍스트의 미학이 공연으로 표현되었을 때 부딪칠 한계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일명 퍽치기를 선택한 부부의 〈생존 노리〉는 연극적 재미가 뛰어난 작품입니다. 무대 밖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무대 위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 전달하며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은 이 작품의 미덕입니다. 다만 제목에서 '놀이'를 '노리(老羸) : 늙어서 쇠약해짐'로 표현한 의도를 작품 안에서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채 때문에 목숨을 담보로 보험사기를 벌일 수밖에 없는 청춘남녀의 마지막 순간을 그린 〈악셀〉은 단막극의 미학이 고스란히 드러난 작품입

니다. 장소, 시간, 인물, 사건 어느 하나 군더더기 없이 주제를 향해 달려갑니다. 무엇보다 서사적 구조가 매우 뛰어나고 연극적 재미 역시 탁월합니다. 이에 〈악셀〉을 가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당선작인 〈구멍〉은 연극적 메타포를 보편적 언어로 표현해낸 보기 드문 수작입니다. 어느 날 싱크홀이 아내와 아이를 삼켜버립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인생에 구멍이 난 주인공은 슬픔을 유예시키고, 유예된 슬픔은 인간관계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온 세계가 느닷없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어버린 지금, 상실과 슬픔에 대한 작가의 세계관이 돋보이는 〈구멍〉을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당선작에 선정합니다. 이 상이 힘든 시기에 큰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2020년 5월 28일

심사위원
김나영, 김석주, 정범철